



#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토끼처럼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사찰과 교회에  
는 입시생을 둔 부모들의 기도로  
만원을 이룬다.

지연, 학연이 출세에 큰 영향을 주는 우리 풍토에서 기왕에 지연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자녀를 출세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식이 출세를 못한다 해도 출세한 사람과 동창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일류대학에 가려고 쪽집게 과외, 고액 과외도 서슴치 않게 된다. 이러한 과외 입시 열풍도 3년여 지나면 모집정원보다 수험생이 적어져 한 풀 꺾이리라고 한다. 벌써 지방대학중에 인원 미달 학과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

이번 서울대 입시에서도 남들은 입학을 그렇게 원하는데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에 입학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농대 합격자라는데 우리의 충격이 크다. 이는 서울대 뿐이 아니고 타 대학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 국민이

농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입학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만 농·축산업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씩 유쾌한 일은 아니다.

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정부의 기구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될 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일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의 눈으로 농림관계 정부기구를 보는 눈이 어떠할까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천 년을 맞으며, 세상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 행정이 축산물 가공업부가 농림부로 이관되므로써 과거 생산증산, 축산진흥 위주에서 유통 가공처리, 신제품 개발, 소비쪽의 비중이 점차 무게를 갖게 되었다.

소비자들도 이제는 상품으로서의 농축

산물을 보는 눈이 높아지고, 특히 안전성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정부는 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서의 농축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의 최종 상품까지 일관 관리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교육까지 책임지게 되어 간다. 농민보호라는 명분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구조에 익숙한 축산농가들이 사료·약품·기자재 등 생산자재 공급업자와 생산된 축산물을 처리해주는 처리·가공·유통업자와 대립적 관계에서 유기적 공존관계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금년에 축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형 인간관계로 될 수 밖에 없겠지만 거래는 슈퍼마켓에서,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족하다.

국제 경쟁력이란 최종상품을 누가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돼지를 싸게 생산하느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해 돼지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서울 도매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이 규격돈 경락가격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는데, 지난 해 초의 사료값 인하와 관련된 사료업체와의 관계도 모두 근본적인 산업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었다.

두번째로 금년에는 마사회 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해 한해 2~3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축산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고 3개 정당의 정책 의장간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속히 실현시켜야 하겠다. 65개 단체가 이를 위해 지난 해 노력하였지만 성사가 되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검토하여, 금년에는 이

지금까지의 산업구조에 익숙한 축산농가들이 사료·약품·기자재 등 생산자재 공급업자와 생산된 축산물을 처리해주는 처리·가공·유통업자와 대립적 관계에서 유기적 공존관계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금년에 축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러한 실수가 다시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자조금 수납 창구에서 의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문제이다.

소비자 교육에 많은 비용이 따르고 생산농가 교육, 각종 연구·조사사업 등 정부 혼자 할 수 없거나, 정부가 함으로써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모으는데는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

금년도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계속 되겠지만, 축산업계가 최소한도 금년에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서로 연대, 공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만의 실업자가 있다고 공식 확인하였으며 잠재 실업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클 것이다. 145만의 농가수를 자랑하며 숫자로 힘을 나타내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농민의 조직도 일반 노동자 조직보다 열악한 상태에서는 과거와 같은 문제해결 방법에 한계에 이르게 된다.

생산자재, 유통, 가공, 판매 등 모든 식품업계 종사자들과 유기적 공존체제로 새로운 산업구조가 금년에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통·판매 구조와 외국의 생산자와 공존체제가 형성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토끼처럼 달려가야 이루어 낼 수 있는 일들이다. **양돈**